

- 액티브X가 무엇일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COM(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과 OLE(오브젝트 링킹 앤 임베딩) 기술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재사용 가능한 객체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

COM(Component Object Model):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루는 바이너리 파일들이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윈도우의 각종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객체라는 기본 단위로 나누고 이 객체들을 사용하는 방식.

즉 액티브X를 통해 사용자의 간섭 없이도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실행 시킬 수 있다.

- 국내 웹에 액티브X가 정착되게 된 이유 및 배경

미국이 자국 기술보호 등을 이유로 해외에 제공되는 웹 브라우저 보안 수준을 40비트로 제한시켰는데 이러한 낮은 보안 수준으로는 인터넷 뱅킹을 하기 어려워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안 수준인 128비트급의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했다.

당시의 표준이었던 DES의 56비트 암호화도 슬슬 위험해지던 시기이기도 했고 1990년대 후반에 PC통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홈뱅킹 서비스에서 해킹 사고가 터진 일이 여러 차례 있어서 온라인 금융의 보안에 대한 관심도 높던 시기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ISA에서는 자체적으로 128비트 키를 가지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고 SEED라는 128비트 암호화 기술을 만들었다.

KISA에서 만든 128비트급인 SEED가 개발되어 배포되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인터넷 뱅킹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웹 브라우저에 지원이 안 되어 ActiveX 이용하였다.

- 기술적 부채(Technical Debt)에 대해 알아보기

기술적 부채란 빠르게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 포기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보수작업으로 차후에 부채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부채라고 하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도 있지만 빠르게 시장에 내놓아야 할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쿨에서 공부하기 전에 스타트업에서 디자인 업무를 했는데 이 회사의 문제점은 너무 완벽하게 만들라고 했고 이로 인해 상품 출시의 타이밍을 놓쳐 지친 대주주의 지시로 2년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보면 기술적 부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 위 내용을 조사하며 느낀 점

컴퓨터의 역사를 보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한 사회적인 이유 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걸 보니
실생활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쓰던 모든 것이 다 신비롭게 보이고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뿌듯한 마음에
하루를 알차게 보낸 것 같다.

각종 개념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빠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어서 당황스러웠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개념을 다 아는 날이 오면 좋겠다.